

3. 자랑스런 내 나라, 내 뿌리 ; 식민사관을 넘어서

THE KOREAN HISTORY FROM OUR OWN PERSPECTIVES

우리의 주변 어디에서나 한국인 혹은 민족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이 너무도 쉽게 얘기되어지고 있다. OO일보 신년 특집 기사 중에 항상 한국인은 사회참여가 없다, 봉사정신이 없다, 준법정신이 결여되고 기회주의적이라는 등의 한심한 얘기만 쓰시던 분(?)이 한국인의 자랑거리를 적어 달라는 신문사의 요청을 받고는 근면하며, 교육열이 높다는 등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명칭한 특징 두어가지 적은 후에 자랑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다는 얘기로 적은 것을 읽었다.

이러한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언론에도 팽배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더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엽전’, ‘한국인은 못 뭉친다’, ‘한국인은 꼭 한국 사람끼리 경쟁한다’ 등 나열하기에 지면이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의 대부분이 한국인만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 전반적인 특성임에도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만을 열등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견해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식민주의 사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 근대사의 비극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시각에서 자주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침략의 발판으로 한국 역사를 왜곡 또는 조작한 데에 있다. 첫 조선에 관한 역사가 1892년 동경대학 국사과에 의해 국사안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편찬되었는데 그 편찬의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선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침략의 역사적 정당성을 만드는 데에 있었다. 그리고 한일합병 이후에는 악명 높은 남만주 철도주식회사 안에 ‘만주 조선역사 지리조사실’을 개설하여 급기야는 조선의 독립성을 말살한 ‘만선사’(조선사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만주와 조선은 함께, 중국의 위성 국가로 존재해 왔다는 것임)를 발간하기에 이르른다.

식민주의 사관적 역사를 이 글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첫째 단군 신화의 말살이다. 단군조선을 인정하면 우선 일본의 건국연도가 조선보다 뒤지게 되므로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를 정당화시키기 힘들 뿐 아니라 단군조선의 제거시 한사군이 조선의 시작이 되므로 결국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되어 계속 식민지로 존속되어 왔으므로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근대화된 일본이 중국을 대신하여 조선의 주인이 될 경우 조선의 근대화에도 더욱 좋다는 통곡할 논리 아닌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좋은 예는 임진왜란이다. 최근까지도 한국의 학교들이 임진왜란의 발달 원인이 일본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조 25년인 1592년 4월 13일, 일본 전국 통일의 힘을 외국 침략으로 분출시켜 정국 안정을 꾀함으로 발달되었다가, 도요토미의 임종 시 일본군 철군을 유언으로 명령함으로 전란이 그쳤다고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은 핫바지 저고리라는 얘기이다. 남이 침략하면 짓밟히고 물러가면 평화를 찾는 전혀 독자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주의 의지도 없는 민족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조선조 정치사를 당파싸움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으며, 조선사를 만주에서 어떤 민족이 헤게모니를 잡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된 타율적 역사로 표현하였으며, 임라 일본부 설을 주장하여 삼한과 가야시절(임라시절)부터 일본이 조선을 일본부 라는 총독부 설치로 통치해 왔으며, 남선 경영설을 통해 고대 일본이 신라시대부터 조선을 지배해 왔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식민주의 사관이 터무니없는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만다. 단군 신화로 중 일연이 쓴 ‘삼국유사’와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에 중국의 ‘위서’를 인용하여 적혀있는 역사적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고대 신화시대 역사를 신화로 표현하는 고대양식에 비추어 볼 때 고대 만주족의 제사장적 왕을 단군으로 명명했던 것이 단군으로 변천된 것이며, 고대시대 족의 혼의 경우 남자쪽 부족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인식하는 관습이 환인의 천제 아들설로 표현되었으며, 곰이 여자가 된 것도 동물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토테미즘의 영향으로 곰을 숭배하는 부족 여자의 신화적 표현이며, 현재도 시베리아에는 곰 숭배사상이 카차카 반도 일대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비, 바람, 구름은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그 당시 이미 농경사회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신화 속에 언급된 곡식과 마늘과 쑥도 농경사회를 반영시켜 주고 있다.

임진왜란도 조선 정규군은 패하였어도 의병은 한번도 패하지 않았으며, 이순신 장군의 해전의 승리로 보급로가 차단되고 진주성 함락에 실패한 일본군이 배수진의 위험을 안고 전쟁을 하다 후퇴한 것임이 최근 발견되는 자료들에 의하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당파싸움도 정치가 있는 곳에 정치싸움이 없는 역사는 없다. 영국은 장미전쟁에서 랭캐스터 가와 욱가의 대립으로 30년에 걸쳐 전쟁을 벌이며, 프랑스도 가문간의 세력다툼으로 백년이나 전쟁을 하였다. 어찌하여 가문간의 대립으로 전쟁까지 한 유럽은 문명국이며, 정당정치를 펼쳤던 조선은 야만국이여야 하는가?

더더우기 우리의 역사에는 자랑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다. 조선조 세종 때에는 왜구의 도발을 보다 못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곡식과 씨앗을 나누어주고 농사와 길쌈 등을 가르친 후에 평화적으로 철수한 인류역사에 그 유래가 없는 평화애호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며, 유대인의 ‘마사다’ 보다 더 위대한 안시성과 행주산성 전투 등에서 위대한 민족혼과 자주성을 보여주고 있다.

AD70년 로마의 유대 침공 시 끝까지 마사다 라는 고원에서 저항하던 열심당원들이 로마의 종이 되기보다는 자유인으로 죽겠다고 고지 함락 전날에 모두 자결한 마사다의 정신을 인류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인간정신으로 손꼽고 있으나, 우리는 안시성에서 당나라의 100만 대군을 맞아 겨우 군사 4만과 백성 10만의 안시성이 양만춘의 지휘아래 매일 6, 7차례 공격을 3개월이나 막았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군사 50만 명을 동원 60일간 안시성을 넘보는 흉산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시성 공략에 실패하여, 당태종은 오히려 양만춘에게 비단 백 필의 상금과 한통의 글을 남겨 자신의 휘하에 양만춘 같은 장수가 없음을 애통해 하였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정신의 승리인가? 누가 감히 100만 대군을 4만의 군사로 대항할 엄두를 내겠는가? 그 외에도

보급군 포함 2백만의 수양제의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과 아녀자까지도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운 행주산성에서 꽃핀 민족혼이야말로 세계에 자랑할 한국 민족혼의 승리이다. 문화적으로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꿀 수 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우리의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애절하고 절실함이야 어디가 그에 못하랴.

우리의 자랑을 다 적자면 책이라도 모자랄 것이다. 문제가 되는 지역감정도 남과 북이 원수가 된 아일랜드보다 나으며, 이탈리아도 남과 북이 상종도 하기 싫어하며, 미국도 남부와 북부가 송충이보다 더 꺼려한다. 지방대립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성에 기인된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 침략 정책으로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심기에 그들의 최선을 다했으며, 제1공화국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친일파가 권력을 잡은 비극적 한국 근, 현대사의 영향으로 우리는 아직도 식민주의 사관의 영향을 받은 교과서로 우리의 새 세대로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한국민족은 열등하다고, 엽전은 할 수 없다고 치부하고 있다.

이민 사회에서도 같은 동족간의 경쟁은 모든 이민 민족이 겪어야 하는 사회적 현상이 결코 우리만의 치부는 아니다. 민족적 자주적 사관의 정립이 절실하다. 우리의 2세에게도 한국의 장점들을 가르치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민족이 아름답고 또한 우리도 아름다움을 가르쳐 긍정적 자아관 위에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을 길러주자.

동트는 금수강산에 고조선이 받을 내린 이후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얼마나 장하게 지켜온 유구한 역사인가? 나는 사랑한다. 내 나라, 내 겨레, 내 뿌리를! 나는 감사한다, 나를 한국인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통일의 기원 속에 감격하며, 우리의 가슴으로 적은 역사를 읽을 날을 나는 고대한다.

4. 한국의 초대교회 I

THE EARLY CHURCH OF KOREA I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며, 새로운 교회가 생겨날 때마다 교회다운 교회를 입버릇처럼 되뇌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보기란 불가능이 아니라면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린 살고 있다.(물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면 과연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논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가 이론의 정립보다는 삶의 실천에 있으니 만큼 역사에서 구체적인 예를 찾아 배움도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교회다운 교회하면 역시 초대교회를 빼놓을 수 없다. 핍박과 곤고와 멸시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교리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살았던 초대교인들, 이 땅에 살았지만 하늘에 속했던 그들의 삶이야말로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도원 중심의 중세 개혁의 물결들, 위클리프와 후스로 연결되어지는 개혁파, 끝내는 종교개혁으로 열매 맺어진 루터, 칼빈, 즈빙글리이 운동들, 청교도들의 신앙, 이 모두가 역사 안에 소중한 빛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나라 한국에 나타났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기독교 초대교회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교회상을 남겼다. 입술로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는 달리 고난의 종 예수를 삶으로 살아간 교회였다. 수많은 한국의 초대교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가산을 정리하여 성경을 보급하며 이웃을 돕는 것으로 예수안의 새 삶을 증거했었다.

내 아내의 외증조부는 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개나리 보따리에 성경책들과 약들을 넣고 함경도 곳곳을 누비며 무료로 치료하며 전도하여 성경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평생을 사시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드문 사례가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을 한국 초대교회 자료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개인적인 영성에 있어서 신앙과 삶의 일치가 이루어진 깊은 영적 삶이었다.

그러나 한국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개인적 영성의 높음에만 지나지 않은 데에서 더욱 빛난다 할 것이다. 초대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수 백년에 걸친 정치, 사회의 부패와 오류에 눈뜨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일제침략의 부당성과 민족자주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초대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의 과제가 ‘반봉건’과 ‘반침략’으로 나타났다.

1890년에는 총기독교 인구가 겨우 오천에서 일만에 불과하였지만, ‘황성신보’와 ‘대한그리스도신보’에는 매관매직으로 고을의 수령이 된 자가 발령을 받고도 그 마을에 이미 야소교(기독교)가 전래되었다는 이유로 부임을 거부한 기사들이 오르고 있다. 무슨 뜻인가? 기독교인들은 이미 관의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그들의 판단과 의사와 진리를 향한 의지를 천명하여 탈관오리들의 부정에 종종 췌기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조 말기의 엄청난 봉건주의적 부패의 주류가 되었던 것이다.

한말 민씨 정권의 부정부패가 극심할 때 전국에 심한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들자 조정에서는 조세를 탕감하였으나, 황해도 관찰사 윤덕영이 오히려 3천만 량이나 올려서 받는 부정을 저지르자 기독교인들이 항거를 일으켰던 것도 ‘반봉건’의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의 나뉜 것이 은혜인 복음 속에서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회복하여 독립운동의 근간이 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립협회의 윤치호와 서재필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주시경, 남궁억, 이상재, 안창호등 민족 자주독립운동의 기수들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지방 독립협회가 길선주 목사 등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평양의 독립협회는 평양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

일본 총독부는 교회 안에서 출애굽기를 설교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지만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는 핍박 속에서도 그치지 않았다. 또한 통신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던 시절에 3.1절 의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나이 어린 기독교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연락을 담당했기에 가능했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개인적 영성에 있어 십자가의 삶의 실천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불의를 고발하며 진리의 사수로서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였다. 우리에게 자랑스런 뿌리가 이 한국의 초대교회이다. 우리도 본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가는 삶을 이루며, 사회적으로 오늘날 역사의 어둠을 깨달아 밝히는 예수의 무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한국의 초대교회 II THE EARLY CHURCH OF KOREA II

한국 초대교회의 높은 영성과 사회적으로 반봉건, 반침략의 기수로서의 빛나는 역사성에 대해서 지난 호에 적었다. 그러면 그러하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여 물질, 물량중심의 세속화된 교회로 전락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교회마다 반봉건, 반침략의 메시지가 높아지며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근간이 되자 일본 총독부는 교회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놀란 선교사들이 교회 보호의 미명아래(한국 교회가 깨어질 경우 그들의 선교실적이 내려감을 걱정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1901년 장로회 공의회에 명의로 ‘정교의 분리’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통곡할 논리 속에서 독립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을 정치참여라는 딱지를 붙여 금지시키게 되었다.

한국 근대, 현대사에서 독재로 인한 인권 탄압과 부정부패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균형에 항거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라는 어처구니없는 딱지를 붙이고 그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어야 할 교회로부터 오히려 배척 받았던 아픔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우리는 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그중 극소수의 예외자는 있었지만) 회의를 열고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조선의 근대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므로 식민지정책을 지지한다는 결의를 하고 그 결과를 워싱턴에 전달하기 위해 그 대표가 가다가 나성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의분한 한국 유학생에게 암살당했으며, 정교분리 선언에도 불구하고 자주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백만인 구령운동에서는 벌써 반봉건, 반침략의 사회적, 역사적 메시지는 사라지고 전적으로 개인 영혼구원(그것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기독교의 복음과는 반대로 이 세상이 무시된 전적으로 ‘저 세상적’인 신앙) 중심의 종교로 전락 되어졌다. 또한 개인 중심적 영혼구원의 메시지에서 기복적 메시지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선교사들이나 백만인 구령운동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땅 조선에서 3, 4대에 걸쳐서 까지 삶을 뿌린 선교사들의 업적에 감사하며, 한국교회의 오순절이라 불리는 백만인 구령운동의 궁극적 역사성에도 찬사를 보내면서 그러나 선교사들에게도 실수는 있었으며 그 실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적 교훈이 큼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선교사들의 식민지정책 동조는 전적으로 그들만의 결정이 아닌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일제의 침략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과 미국은 일본의 한국침략과 미국의 필리핀 진출을 서로 상관치 않기로 한 조약을 맺었으며, 한국 선교사들의 결정은 워싱턴의 그러한 영향 아래의 결정이었던 것이다.

아무튼 오늘 한국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복적 신앙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택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삶에 실천하며, 물질, 향락, 물량 중심적 현대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삶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장에 증거해야 할 것이다.

현대라는 시대의 표적을 보자. 기독교인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다. 시대를 보고 역사로 깨달아 자기를 초월한 신앙의 삶을 살자. 우리에게 재발견해야 할 자랑스런 뿌리가 있다. 뿌리를 찾아 내일을 향해 푸르른 한국교회가 되자.

6. 민족적 교회사로 정립하자

THE UNIQUENESS OF THE KOREAN CHURCH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에 있어서 좀 별다른 데가 있는 교회다.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서를 가지고 있었다. 만주에서 로스목사와 매킨타이어 목사가 기독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계기로 기독교인이 된 수명의 한국인들과 더불어 성서의 일부를 번역하였으며, 또한 일본의 한국 유학생이 번역한 마가복음서가 있었다.

그리하여 1884년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온 아펜셀러는 일본을 경유하여 한글성경을 들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또한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요 첫 장로교 노회의 일곱 목사중의 하나인 서경조목사(서상윤씨의 동생)에 의하면 한국에서 1883년에 이미 첫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또한 감리교의 최병은 목사는 한문 성서를 읽고 감동을 받아 스스로 아펜셀러를 찾아가 성서 내용을 토론하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은 한국교회의 시작이 선교사의 내한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선교사 도착 이전에 한국인들의 자주적인 교회의 시작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회는 지난 1984년을 한국교회 100주년에 무지막대한 돈을 들여서 역사성도 사회성도 별로 없는 행사위주의 축제를 드렸다. 한국교회가 누구에 의해(궁극적으로야 누구를 통했던 성령이시지만) 시작되었느냐 하는 시시콜콜한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적 시간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만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글을 적는다.

한국교회의 바른 사명의식과 바른 이해가 한국교회의 역사적 이해 즉 뿌리의 바른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뿌리는 선교사 위주의 교회사 정립으로 인해 잘못 인식되거나 소멸되어 버려진 것이 너무도 많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개를 간추려 보며 내일을 향한 한국교회상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한국교회사는 한인 성서 번역자들의 공로를 빼놓을 수가 없다. 현재까지 발견된 한인성서 번역자들은 약 38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권서인’들 없는 한국교회사는 있을 수도 없는데 이들에 대해 우리는 너무도 무지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권서인들은 대개가 선교사 밑에서 보수를 받고 일한 사람들로써 이들이 지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곤 했었다. 선교사나 성서공회에 속했던 이들은 한번 집을 나서면 3-4개월 동안 1일 12-14km를 걸으면서 전도 여행을 하여 한국 초대교회의 근간을 이루었으나 현재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권서인’이란 단어조차 모르는 사람이 허다함은 부끄럽다 해야 할 지 아프다 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셋째로 ‘전도부인’을 빼고 어떻게 한국교회를 노하겠는가.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는 여신도 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남녀 칠세 부동석의 문화권에서 여성들의 전도와 목회는 전적으로 전도부인들의 사역이었다. 전도부인들의 공로로 여신도의 수의 증가로 인해 한국 초대교회는 많은 여학교를 설립하여 오늘날 한국 여성운도의 보루들이 되어 있으며,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 배출의 산과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신도 전도자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예수를 영접 후 그들의 삶과 가산을 모두 선교에 헌신해 버린 숨은 빛나는 별들이 자랑스런 선배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인 순교자들과 한국인 목회자들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한국인 목회자들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학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이 묻혀버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교회사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손에 의해 정리된 데에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한국 교회사를 적고 있다. 스스로 성격을 번역하고 스스로 교회를 설립하였고 ,스스로 전도했던 한국교회야 말로 민족적 교회사를 우리에게 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왜곡 없이 우리의 눈으로 이해 정리하여야 되리라 믿는다.

한국 개신교 1백 주년 기념행사가 이러한 고찰도 없이 어떠한 반성과 고백의 아픔도 없이 무조건 선교사의 도착 날짜부터 계산하여 선교사 도착이나 재현하는 행사 위주의 의식으로 끝났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주적인 눈을 갖자.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흉내 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고백을 발견하여 그 예수를 만방에 증거하자. 선교는 교리의 수출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즐거움의 축제이다. 한국교회의 급선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본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참으로 나를 아는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아는 자 자신을 아는 자이다.